

K리그1 순위 싸움 더 뜨거워진다

광주FC, 포항과 1-1 무승부
원정 경기서 '값진 승점 1'
4위 서울 이어 승점차 없는 5위
순위싸움 다크호스 행보 계속



광주FC의 티모(맨오른쪽)가 지난 13일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동점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K리그1의 순위 싸움이 더 뜨거워졌다. 울산현대가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6강을 놓고 숨막히는 K리그1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FC는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는 지난 4일 진행된 25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3-0 대승을 거두면서 '승격 동기'의 추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어 13일에는 리그 2위인 포항스틸러스의 안방에서 값진 승점 1점을 챙겨왔다.

광주는 포항스틸러스에서 열린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20분 고영준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승리는 내주지 않았다.

몇 차례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0-1로 전반 전 마무리한 광주는 후반 초반 포항의 거센 공세를 막은 뒤 반격에 나섰다.

후반 20분 아론이 날린 중거리 슈팅이 포항 골키퍼 황인재에 맞았지만 2분 뒤 티모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은 티모가 오른쪽에 있던 이순민에게 공을 넘기고 전진했다. 이순민이 때린 공이 수비 맞고 티모 앞으로 향했다. 이어 티모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슈팅을 날리면서 포항 골대를 뚫었다.

2위 포항은 안방에서 승리를 만들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광주에 몇 차례 위기도 있었다. 포항 그랜트의 헤더가 골대 맞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광주는 김종우의 원발 슈팅이 빗맞으면서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4분의 후반 추가 시간을 버티면서 광주는 적지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만들었다.

광주는 이날 승점을 더하면서 대전에 3-4 패배를 기록한 4위 FC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광주와 서울의 올 시즌 전적은 10승 8무 8패(승점 38)로 같다. 득점에서 서울이 앞서면서 광주가 승점 차 없는 5위에 자리하고 있다.

3위 전북현대도 26라운드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승점 3점 차로 가시권에 있다.

광주가 난적을 상대로 승점을 더하면서 3-4위 팀을 압박했지만 뒤에서 추격하는 팀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26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팀이 된 6위 대전, 7위 인천유나이티드가 승점 2점 차로 광주를 추격하고 있다. 8위 제주유나이티드와 9위 대구FC도 승점 3차, 4점 차에 불과하다.

10위 수원FC는 승점 23으로 격차가 있는 만큼 3위 전북부터 9위 대구까지 뜨거운 8월을 보낼 전망이다.

한편 포항 원정에서 6경기 연속 무패(2승 4무)를 찍은 광주는 오는 18일 오후 7시 인천으로 가서 27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체중 최지웅(가운데)이 지난 11일 해남에서 열린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 대회 남중부 3종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뒤 시상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근대5종연맹 제공)

광주체중 근대5종 최지웅 시즌 4관왕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우승

근대5종 광주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광주체중 최지웅이 개인 4관왕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최지웅은 지난 11일 해남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 남중부 3종 개인전 결승에서 총 918점을 획득, 신지원(900점)과 박세찬(895점)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지웅은 수영에서 2분06초53 기록으로 7위에 그쳤으나 레이저런(육상+사격 복합)에서 역주를 펼쳐 621점(1위)을 따내 역전 우승을 일궜다.

이로써 최지웅은 올시즌 4월 제40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5월 제10회 한국실업근대연맹회장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이어 4번째 전국대회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남중부 근대5종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최지웅의 활약을 앞세운 광주 근대5종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

개를 수확했다.

광주체중 송현서-이지아(이상 2년)-양보민(1년)은 지난 13일 여중부 계주에서 648점(수영 265점 2위-레이저런 383점 2위)으로 서울(690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광주체중 송현서-이지아-양보민-김채림은 지난 11일 여중부 3종 단체전에서 총 3020점(수영 1014점 4위-레이저런 2006점 3위)으로 동메달을 합작했다.

송학건설 박기연-이예설-조하은은 14일 여일부 계주에서 873점(수영 256점 3위-펜싱 210점 2위-레이저런 407점 2위)을 획득, 912점을 기록한 경남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김서진(원곡초)-윤재우(은빛초)는 남초부A 2종 단체전에서 총 294점(수영 104점-육상 190점)으로 은메달을, 이우호(용두초)-이정담(새별초)은 남초부C 2종 단체전에서 총 1076점(수영 511점-육상 565점)으로 동메달을 각각 합작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제27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에 참여한 한국과 일본 선수단이 지난 13일 광주 힐리데이인호텔에서 환송연을 갖고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한일 청소년들 광주서 6일간 스포츠로 우정 나눴다

스포츠 교류 성황리 마무리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체육회가 주관한 '제27회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14일까지 6일간 광주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쿠시마현(축구, 배구)과 오카야마현(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5종목 208명을 꾸려진 일본선수단과 우산초, 방림초, 문화중 등 광주지역 25개교의 218명으로 구성된 한국선수단이 참가했다.

교류 행사는 첫날 태풍 카눈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과 고온의 날씨에도 실내경기 진행과 경기 시각

조정, 경기장별 의무팀·구급차 배치 등 주최 측의 철저한 준비로 무사히 완료됐다.

교류 경기는 3일간 합동훈련과 연습경기, 공식 경기로 진행됐다. 세부종목별로 축구(2승), 배드민턴(4승) 경기는 한국선수단이 우세했고 탁구(4승), 배구(3승 1패) 경기는 일본선수단이 우세했다. 농구는 2승 2패로 동률을 이뤘다.

양국 선수단은 승패와 관계없이 서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력을 시험해보고 국제경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며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는 게 광주시체육회의 설명이다.

일본선수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립

미술관, 광주김치타운 등 다양한 명소를 방문해 광주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13일에는 양국의 전체 선수단이 빛고을체육관에 모여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 친교의 시간을 보내며 청소년들 간의 우정을 키웠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선의의 경쟁으로 양국의 청소년들이 국적을 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류가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웃 나라 청소년들의 우호 관계 강화에 건강한 역할을 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양여고, 전국여자축구선수권 우승



제22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여고등부 우승을 차지한 광양여고 축구부가 우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축구협회 제공)

광양여고 축구부가 여자 고등부 정상에 올랐다.

전남축구협회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창원스포츠파크에서 열렸던 제22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광양여고 축구부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선수단은 이번대회에 광양여자고(고등부), 광영중(중등부), 광양중앙초(초등부) 선수단을 꾸려 출전했다.

특히 제104회 전국체전 여자고등부 도대표로 출전하는 광양여자고(고등부)의 활약이 눈부셨다. 예선에서 대구동부고에 5:0, 강원화천정산고를 5:1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충남인덕대학교 4:0 승, 4강에서 조2위로 강릉FC를 꺾고 올라온 강원화천정산고를 다시 5:1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라 이벌'팀인 경북포항여전고를 만나 2:0으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여고 주장인 황다영(3학년)은 최우수선수

상, GK상은 위혜빈(2학년), 득점상은 조혜영(2학년)이 수상했고, 권영인 감독과 김효선, 이슬기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한편 같은 대회에 참가한 광영중은 예선 3승 0패로 조1위로 8강에 진출했지만 경남진주여중에 0:3으로 패하며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광양중앙초도 예선 4승 1패로 조2위 본선 6강에 진출했으나 충북남산초와 1:1 무승부로 승부차기 끝에 3:4로 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고맙다"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들이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우리 도에서 15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우수 성적 거양을 위해 담급질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에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CHUNG TRIO CONCERT
일시 : 2023. 08. 26 SAT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